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이미화 선임연구원

국제사회는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니세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CFC)를 정의하면서, 유엔아동권리 협약(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주창하고 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한 선결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담당공무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 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및 행정체계구축이 여전히 미비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기존 세대의 인식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아동의 인권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¹⁾.

환경의 변화 중 도시화로 인한 여러 병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 환경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한 도시화의 부작용에 주

목하는 이유는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체이기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²⁾

세계 각국은 아동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유니세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CFC)를 정의하면서, 유엔아동권리 협약(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

* 본 원고는 이미화·이윤진·박상신(2018)의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의 연구수행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함.

1) 이영안·한연주·김진선·조은영(201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1.

2) 남승연·이나련·장미(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32.

업을 추진 중이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인력, 그리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여야만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요구

아동과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359명의 초등학교생과 329명

의 중학생 총 688명, 학부모 9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국민 조사 및 아동청소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와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등 항목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UN아동권리협약

1) 아동 의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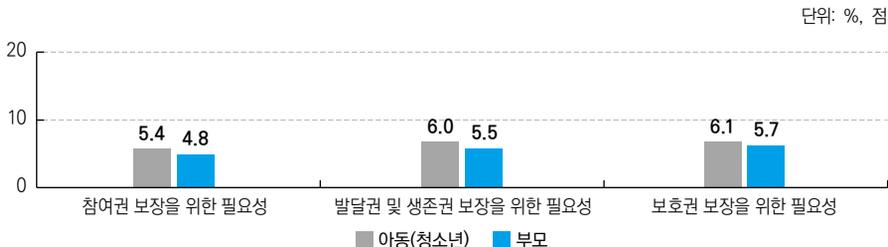
아동의 UN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중학생의 40.7%는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3%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이 UN아동권리협약의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평균은 5점 만점에 4.3으로, 아동(청소년)

〈표 1〉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및 중요도

구분	아동(청소년)	부모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비율	40.7%	48.9%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	4.3/5점	4.3/5점

자료: 이미화 외 (2018). 한국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8.



자료: 이미화 외 (2018). 한국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68. 표 V-3-1 재구성.

[그림 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성: 7점 평균

3) 이들 중에는 영유아를 대변하는 부모 300명이 포함됨.

은 UN아동권리협약 중요도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학부모의 48.9%는 UN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5%는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UN아동권리협약의 중요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학부모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부모는 UN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 아동 의견 조사 결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요구를 7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공무원들과 모든 어른이 아동 및 청소년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하기’로 문항 평균은 7점 만점에 5.8점이었다. 중학생은 본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질문하였다. 평균 점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7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강화(63.9%)’이고, 이 문항의 평균은 7점 만점에 4.6점이었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의 참

여권 보장을 위해서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1) 아동 의견 조사 결과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7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평가를 질문하였는데, 7개의 세부문항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하기’였으며, 7점 만점에 6.3점에 해당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11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평가를 질문하였는데, 11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학부모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었으며(81.5%), 7점 만점에 5.7점에 해당하였다. 학부모는 아동의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라. 보호권을 위한 필요성

1) 아동 의견 조사 결과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8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평가를 질문하였는데, 8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유괴나 납치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기'였으며, 7점 만점에 6.3점에 해당하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교통안전 교육 시행하기'였으나, 이 문항의 평균 점수는 5.8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동(청소년)은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항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11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학부모의 인식 및 평가를 질문하였다. 다른 권리와 비교할 때 학부모가 인식하는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8개의 세부문항 중에서 학부모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집이나 학교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미리 알려주기'였으며(81.2%), 7점 만점에 5.8점에 해당하였다. 11문항의 평균 점수는 각각 5.6점에서 5.9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항목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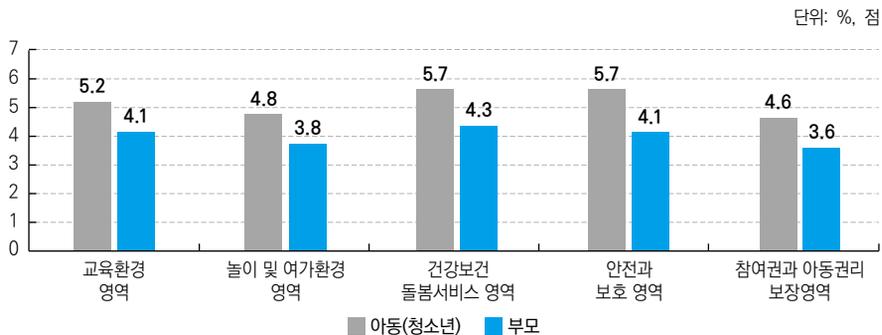
가.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인식과 요구

1)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

초등학생 359명과 중학생 329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 환경, 거주 지역의 건강 및 보건, 거주 지역 및 학교에서의 안전과 보호, 거주 지역의 참여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학부모 900명⁴⁾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교육환경,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환경, 거주 지역의 건강보건 및 돌봄서비스, 거주 지역의 안전과 보호체계, 지역사회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7점 척도로 조사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및 평가를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이미화 외 (2018). 한국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2 표 재구성.

[그림 2]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요구: 7점 평균

4) 이들 중에는 영유아를 대변하는 부모 300명이 포함됨.

가) 교육환경 영역

(1) 아동 의견조사 결과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14개의 세부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의 평등한 교육, 성교육, 진로체험 등 세 문항으로 7점 만점에 5.6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매우 낮게 응답하여, 학교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에 대해 7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내가 사는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였으며, 7점 만점에 4.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세부 문항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대부분 평균에 근접해 있었다.

나) 놀이 및 여가환경 영역

(1) 아동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 환경에 대해 7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평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4.8점으로 아동은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문항 중 '우리 동네는 내가 놀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쉽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

램을 통해 내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 이외의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평균이 5점 이상이었다.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우리 동네에는 내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임, 활동이 다양하게 있다'였으며, 평균은 4.4점이었다.

(2)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놀이 및 여가환경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조사결과보다 전체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의 세부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내가 사는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등 네 문항에서 7점 만점에 3.9점이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3.7점으로 응답되어, 학부모는 거주 지역에 아동(청소년)의 놀이 시설이 더 증설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건강보건 및 돌봄서비스 영역

(1) 아동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평가를 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평균은 5.7점으로 대부분 평균과 유사하였으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나는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였으며(94.5%), 7점 만점에 6.6점에 해당하였다. 이는 식수와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주변 환경 수준은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념할 부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6개의 세부 문항 중 5개 문항의 평균이 5.4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아동(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가 사는 동네에는 내가 우울하다고 느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28.2%였다. 아동(청소년) 4명중 1명은 우울하다고 느낄 때,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건강보건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7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내가 사는 지역은 자녀에게 예방접종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 수월하다'였으며(65.4%), 7점 만점에 5점에 해당하였다.

반면, '내가 사는 지역은 자녀 돌봄에 대해 고민을 나누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이 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7점 만점에 중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부모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안전과 보호 영역

(1) 아동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 및 학교에서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해 13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치안과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문항에 대하여 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문항에 대하여 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은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동네에는 내가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충분히 있다'에 대하여 62.1%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19.8%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안전과 보호체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평가를 9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내가 사는 지역은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였으며(50.4%),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4.4점이었다.

마) 참여권과 아동권리 보장 영역 결과

(1) 아동 의견조사 결과

거주 지역 참여권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평가를 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한다'였으며, 이 문항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1점이었다.

6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였으며, 평균은 4.3점이었다. 아동(청소년)은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의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지역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평가를 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였으며(23.9%), 이 문항의 평균은 7점 만점에 3.8점이었다.

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사 결과

(1)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 및 필요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지 여부, 아동친화도시의 필요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18.6%가, 부모는 20.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나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도입 단계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나. 아동친화도시 담당공무원의 인식과 요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인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를 중심으로 담당공무원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인 11개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별 1~3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인증을 위한 과정, 진행 과제, 어려움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자체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효과 등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간 아동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동 중심 예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중심 지역의 중요성과 아동권리 반영에 애쓰는 과정으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인증마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아동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학교 담당자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2〉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 7점 평균

구분	아동(청소년)	부모
아동친화도시 인지 여부 비율(%)	18.6	20.7
아동친화도시 필요도	4.2	4.1

단위: %, 점

자료: 이미화 외 (2018). 한국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77.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

인증과정에서 공무원조직과 NGO 단체 간의 의사소통 구조에 어려움이 일부 있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또는 아동친화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행정인력의 독립화, 옴부즈퍼슨제도의 정착 등은 현재의 인프라로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에서의 지원 요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재정적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4.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가.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단계별 구축

한국의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가정하여 볼 때, '아동친화적 가치관'의 형성 및 확산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를 인증 시작 전에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한 정책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미인증 도시: 아동권리의 가치철학적 기반 형성 및 확산

미인증 도시의 경우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철학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아동권리 중심의 도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교육, 부모의 아동 존중 가치의 함양 등이 전제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권리교육을 지역사회 내 학교와 연계하여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자체 인력 풀로 힘들다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분기별로 1회 씩이라도 권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증 준비 중인 도시: 해당 지역의 특색 파악 및 효과 확산

인증 준비 과정에 있는 도시들은 유니세프의 원칙 아래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유니세프의 기준은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무원 설득, 효과 확산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할지에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의 경우 무엇보다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인증 준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의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색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반영하는 것이 좋다.

3) 인증 도시: 안전 및 놀이에 대한 관심 확산과 사업의 지속성 유지

본 연구의 대국민 조사 결과 아동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증 받은 지자체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대국민 조사 결과, 아동친화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아동친화 도시 인증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간적 미성숙 이외에도 국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반영한다. 인증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인프라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도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아동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도시 규모별 주력 사항 검토 후 시행

1) 공통: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 목표 설정

지방 대도시와 서울의 자치구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색에 기반한 특정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다.

2) 지방 중소도시: 놀이활동가 제도 도입

먼저, 세부적인 사업을 지자체에서 관할하기에 인력 운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바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 놀이터 사업 중에서 직접 놀이터에 상

주하는 ‘놀이활동가’를 통해 놀이 교육과 놀이 지도, 양육 상담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그 중에서도 놀이 환경 구축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3) 대도시: 행정 계획에 아동 예산 항시 별도 책정

아동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예산에 여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도시 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아동 관련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아동친화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아동의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한국이 향후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어 선진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일 수 있으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지방 중소도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나가며

우리나라는 2013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년~’19년)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포괄적 복지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인증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인력, 그리고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므로 앞으로 더욱 이를 활성화시켜 사업을 아동 중심으로 유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놀이권'과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아동의 참여와 놀이 문화 확산, 놀이권 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성의 첫 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검증된 컨설팅 기구 내지는 자문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적절한 예산의 투입 역시 함께 요구된다. 또한 아동친화도

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통요소와 지역특성별 요소를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강점인 부분이 조례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 고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현 상황에서 한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되, 국외 선진 사례를 함께 흡수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 모두가 각자 태어나 자라는 곳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아동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가를 한국 사회에 균형 있게 점진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해본다.